

47년의恨 “진정한 종전은 국군포로 송환으로 완성”

탈북 국군용사 유영복 선생 기념회

2000년 中 경유 대한민국 품 안겨 ‘귀환국군용 사회’ 단체 회장 역임 현효제 작가, 6·25용사 사진촬영 가족 자처 15명과 ‘가족사진’ 남겨



탈북 국군용사 유영복 선생(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역삼동 픽처러스 스튜디오에서 전역 시 받은 하사 전투복을 착용하고 특별한 가족사진을 찍고 있다.

11일 한국전쟁(6.25)에 참전했던 노병들이 전우들이 잠든 부산 유엔묘지를 참배했다. 같은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픽처러스 스튜디오에서는 탈북 국군용사 유영복 선생의(88) 특별한 가족사진이 촬영됐다.

오후 3시 스튜디오에는 유영복 선생의 가족을 자처한 사람들로 가득찼다. 현효제 작가(39)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날 유영복 선생의 가족을 자처한 15명 모두 이날 처음 만났지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함은 이내 사라졌다. 갓난 아이, 초등학생, 현역 육군 장교, 예비역 군인,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하나 씨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유 선생은 1953년 육군 5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됐다. 23육군일병은 이제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지만, 자태만은 20대 못지 않게 강건했다.

북에서 천대계층으로 취급받으면서도, 대한민국과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으로 살아온 그는 47년간 북한에 살며, 그 중 30여 년을 함경남도 검덕·동남 광산에 보내져 광부나 측량사로 힘들게 일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탈북을 실행한 유 선생은 2000년 중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탈북 후 유 선생은 국군포로 단체인 ‘귀환국군용 사회’를 만들고 회장으로 역임했다. 이날 유영복 선생 가족사진 촬영은 현효제 작

가의 제안으로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과 김하나 씨의 후원했다.

현 작가는 국군장병의 사진은 물론, 2016년부터는 전 세계를 돌며 생존한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사진을 찍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는 18개국을 돌며 700여 명을 찍었다.

현씨는 “탈북한 참전 용사들 이야기를 듣고 ‘가족사진’을 찍어 드리고 싶었다”면서 “국가는 당신을 잊었는지 몰라도 국민은 당신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싶었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유 선생의 새로운 가족들은 현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유영복 할아버지’와 그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는 글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 안종민 사무국장(퇴역 육군 대위·44)은 “기억을 기록하고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질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라면서 “9살 딸의 기억속에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을 직접 뵈고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걸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했다.

유영복 선생은 사진 촬영에 앞서 남북 평화 분위기를 향해 걷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국가의 처우에는 불만이 없으면서도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종전이 되기 위해서는 국군포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0여명의 탈북국군 포로 중 생존자는 23명, 유영복 선생처럼 거동이 가능한 분은 수 명이다. 한시라도 이 분들이 살아계실 때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 작가는 “미국의 경우 현지 참전용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참전용사 분들의 연락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etroseoul.co.kr

“정부, 軍 후배 위해 ‘국군포로’ 해결 나서야”

인터뷰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선생

“故 김대중, 평양 방문때 탈북 결심 2014년 생존 포로 500여명 달해”



탈북 국군용사 유영복 선생이 11일 서울 역삼동 픽처러스 스튜디오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북한에서 국군포로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지난 11일은 제1차세계대전의 종성이 멎은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금 한반도에서도 종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짜 종전은 남북 양측이 찢어서 아픈 기억마저 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눈에 보이는 GP철수, 한강하구 조사만이 찢어 아픈 부분이 아닐 것이다.

탈북 한국전쟁(6.25) 국군포로들이야말로 진정한 종전을 위해 치우돼야 할 아픔일 것이다.

기자가 11일 서울 역삼동 픽처러스 스튜디오에서 만난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선생(88)은 90을 바라보는 노인이라기에는 너무나 강건한 모습이였다.

그는 기자에게 “포로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군의 후배들에게 조국은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위해서는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TV로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그는 북한에서 목격한 국군포로의 모습을 이

렇게 전했다.

적대계급으로 분류된 국군포로들은 개전 초기에는 수용소에 수용됐지만, 북한이 고전하자 국군포로들은 탄광 등 힘든 노역장으로 끌려가거나, 인민군에 편입됐다. 인민군에 편입된 국군포로들은 전투 중에 남쪽으로 넘어갈 기회를 엿보려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북한은 한국전쟁 포로에 대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1954년 이후 “강제 억류 중인 국군 포로는 공화국에 한 명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8만2000명의 한국군이 한국전쟁

이후 실종됐고, 5만~7만명이 북한과 그 동맹 국가(중국)에 억류됐다”고 추정했다. 당시 기준으로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는 500여명이였다.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북한만의 책임은 아니다. 정치이념 논리에 막혀 그들은 소외됐어야 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군포로는 북한의 부역자로 비취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군포로들의 북한 가족문제를 고려해 자유왕래를 고려했지만, 정작 북한과 중전협정을 맺고, 최전방 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을 실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 안종민 사무국장(퇴역 육군 대위·44)은 “정부가 하지 않던 일들을 민간에서 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다. 남북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면, 민간에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게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포로의 무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역사의 아픔은 다른 형태로 반복될 지 모른다.

100년 전 11일 콩피에뉴의 열차에서 독일 대표 마티아스 에르츠베르거와 연합군 대표인 프랑크 포슈 원수는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36일 간의 휴전협정은 두 차례 연장 끝에 사실상 종전협정이 됐다.

/문형철 기자



이개호 장관 ‘쌀값 논란’ 해명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목표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연철뉴스

헌병 → 군사경찰, 정훈 → 공보정훈 명칭 변경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헌병 정훈 등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군 병과 명칭이 새롭게 바뀐다.

국방부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헌병(憲兵)과 정훈(政訓) 병과의 경우 구 일본군과 군내 정치사상화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병은 군의 병과가 아닌 군과 경찰의 상위개념에서 군질서와 일반행정을 담당하던 프랑스의 ‘국가헌병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 일본군과 중화민국(대만)군은 ‘헌병’을 사용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구 일본군의 ‘헌병정치’를 연상시키고, 미국식 군사경찰제도를 본뜬 국군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군사경찰’로 병과명이 바뀌게 된다.

정훈 병과 또한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병과명이 공산권의 ‘정치지도원’을 연상시킨다는 군내 각성과 함께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문형철 기자

실종아동 찾기 복합인지기술개발 착수

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지능형 CCTV, 다양한 첨단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 및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은 실종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의 안심 귀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기준 실종아동 수는 연간

2만여 명,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자 수는 연간 1만9000여 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복합인지기술이란 대상자의 현재 얼굴뿐만 아니라 시간, 행동, 장소 등 변화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연결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실종자의 경우에는 나이를 변화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치안현장의 문제해결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세종=최신용 기자

국토발전전시관 4.3만 방문 국토부, 개관 1주년 성과

국토교통 분야의 유일한 국립전시관인 국토발전전시관이 개관 1년 만에 방문객 4만3000여명을 달성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전시관은 전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험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1년간 누적 방문객이 4만3500명을 넘겼다.

방문객은 일반 관람객 3만6000명, 청소년 5800명,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월드뱅크,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생 등 외국인 1700명 등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이차전지 3사 ‘배터리 주도권 확보’ 맞손

산업부, 공동 R&D협력 MOU

차세대배터리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3사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차세대배터리 산업펀드를 조성하고 3사 공동으로 차세대 배터리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이차전지 3사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차세대배터리 펀드 조성 및 공동 R&D 협력 MOU 체결식’과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산업부와 이차전지 3사는 1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배터리 펀드를 조성하고 차세대배터리 원천기술(IP) 공동 확보, 차세대배터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펀드 조성은 2019년 1사 분기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배터리 관련 소재-공정-장비 분야의 상용화 핵심기술개발에 관한 공동 R&D 추진을 위해 ‘차세대배터리 핵심기술 공동 R&D 협력 MOU’도 체결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